

‘지옥 판타지’ 크리스마스 선물같은 영화 ‘신과 함께...’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갈까. 종교에 따라 사후세계를 서로 다르게 안내하지만, 공통점은 있다. 그 사람이 죽기 전 어떻게 살았느냐를 사후세계에서 신이 평가해 합당한 조처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적 사후세계관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49일 동안 7개

7개 지옥안서 전개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반지의 제왕·호빗’ 잇는 국내 판타지 영화

지옥을 돌며 자신의 업보를 평가받 아 극락으로 갈지, 사람으로 환생할지, 사람이 아닌 미물로 환생할지, 지옥에 떨어질지 등이 결정된다. 궁극하지만,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사후세계, 즉 ‘지옥’을 살짝 엿볼 기회가 생겼다. 판타지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 덕이다.

소방관 ‘김자홍(차태현)은 화재 현장에서 소년을 구하다 숨진다. 의로운 죽음을 맞은 그의 앞에 ‘강림(하정우)’, ‘혜원(박지훈)’, ‘덕준(김향기)’ 등 삼차사가 등장한다. 이들은 망자(죽은 사람)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사자, 즉 저승사자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저승사자와는 조금 다르다. 차사는 망자의 변호사 역할을 겸한다.

삼차사는 저승을 ‘99년 만에 나타난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며, 49일간 7개 지옥을 거치며 재판을 받게 되지만 모두 무사히 통과해 거뭇한 ‘환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종교적 거부감을 우려해 불교적인 ‘극락’을 빼고 환생을 가장 좋은 성적표로 내놓은 듯하다.)

그때부터 지옥(불구덩이) ‘살인 지옥’, ‘칼날로 심판하는 거짓 지옥’, ‘혹독한 추위의 ‘불의 지옥’ 등)들이 각기 특성에 맞춰 실감 나게 펼쳐진다.

여기서부터 이렇저런 경로를 통해 들어온 지옥의 모습이지만 죽기도 전에 미리 볼 줄이야.

의인답게 7개 지옥을 손쉽게 통과한다면 자홍이나 삼차사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관객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자홍에게는 의외의 업보가 있었고, 이는 이들에게 쉽지 않은 여정을 선물한다. 게다가 이승에서 자홍의 직계 가족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며 이들의 저승길 여정은 더욱 험난해진다.

할리우드 판타지 블록버스터 ‘반지의 제왕’ 시리즈(2001~2003)과 그에 이은 ‘호빗’ 시리즈(2012~2014)까지 끝내버려 매년 겨울이 아쉽기만 했던 국내 판타지 영화 팬에게 ‘신과 함께’는 가히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물론 제작비 규모는 그 몇십 분의 일에 불과하나 300여원이 넘는 국내 영화 사상 최대인 제작비와 할리우드의 돈에 맞설 수 있는 한국 영화의 유일한 합인 출연진, 제작진의 노력으로 그에 절대 뒤지지 않는 판타지 영화를 만들어냈다.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고 절로 탄성이 나온다. 실제로 저릴까 싶은 7개 지옥 안에서 전개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현재 저승에서 벌어지는 일을 훑쳐보는 듯하다.

여기에 깔린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인 ‘가족’ 덕에 관객은 김자홍을 응원하며 영화 속으로 더욱 깊이 빨려 들어간다.

연출자 김용화 감독은 미녀는 괴로워(2006) ‘국가대표’(2009)를 연속 히트시켰으나 2013년 ‘미스터리’로 패배를 겪었다. 그러나 그때 쌓은 컴퓨터 그래픽 등 VFX 경험과 기술력은 그가 4년의 와신상담 끝에 들고 돌아온 이 작품에서 만개해 ‘반지’나 ‘호빗’ 부럽지 않은 판타지 영화를 내놓을 수 있게 만들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영화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한다’는 찬사를 듣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그러나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영화 장르에 알맞게 재구성했다.

웹툰에서 차사와 변호사였던 두 등장인물을 강림으로 합쳐놓았고, 김자홍의 이승 직업도 회사원에서 소방관으로 바꿨다.

웹툰 애독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은 것인데 웹툰을 보지 않은 관객에게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아니 애독자라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만을 품지 않아도 될 정도다. 집중도와 흥미를 빼가하는 훌륭한 선택이라 감히 평가할 수 있다.

스타성과 연기력까지 갖춘 배우들의 열연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들이 펼친 대부분 연기가 후반 작업에서 CG를 입히게 될 그린 스크린 위에서 영화에 그려질 것을 ‘상상’하며 이뤄졌다는 점을 굳이 감안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들은 차사(하정우, 박지훈, 김향기)이고, 망자(차태현)이며, 각 지옥을 관장하는 대왕(이정재, 김혜숙, 이경영, 김관늘, 장광, 정해균, 김수안)과 판관(오달수, 임원희)이다. 자홍의 가족 등 이승 사람들을 나눠 맡은 예수정, 김동욱, 이준혁, 도경수, 유준상 등도 마찬가지다.

관객은 이 영화를 보며 마치 테마파크의 어트랙션 위에 올라탄 것처럼 술 가쁘게 달려나간다. 그러다 자홍의 숨은 사연들이 밝혀지고, 자홍이 숨진 뒤 전개되는 또 다른 사건을 보면서 나 이어가, 내 가족이 아기를 보는 것처럼 회한을 느끼게 된다. 이를 ‘신과 함께’라고 비판하기에는 너무도 송고하다.

리닝타임 139분 동안 때로는 손에 땀을 쥐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끼다 보면 이 영화의 후속작을 어떻게 기다리나 싶을 것이다. 특히 쿠키 영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

영화는 한국 영화 최초로 1, 2부를 함께 제작해 이번 겨울과 내년 여름 나눠 개봉한다. 그러나 ‘반지’나 ‘호빗’처럼 1년씩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먼 훗날 저승에서 가서 7개 지옥을 도는 것이 최소한 두렵지는 않도록 착하고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오는 20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드라마에 예능까지..교도소 콘텐츠 왜 끌리나?



9시 뉴스도 아닌데 교도소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요즘이다. 그동안 교도소 내 범죄자들의 억울한 사연이나 탈옥 스토리가 종종 드라마 콘텐츠로 사용되긴 했지만 요즘처럼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뤄지진 않았다.

올해 초 방영된 SBS ‘괴고인’은 누명을 쓴 검사(지성 분)가 사형수가 왜 진실을 밝히려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렸다. 현재 방송 중인 ‘의문의 일승’은 사형수(윤규상 분)가 탈옥 후 형사 신분이 된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대표적인 교도소 콘텐츠는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이다. 기존 드라마들이 주인공의 사연을 극적으로 보여주던 배경이나 장치로 교도소가 짧게 그려진 반면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아예 이 곳을 주무대로 삼는다.

그래서 시작 전부터 범죄자 미화 우려의 시선이 쏟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 열린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뜻밖의 사고로 잘나가는 야구 선수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수감된 김제혁(박해수 분)과 동료 재소자들의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앞서 신원호 PD가 설명했던 대로 블랙 코미디물이다. 신한 줄 알았던 교도관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수감방에서 귀여움을 한몸에 받던 막내가 끝까지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 감옥은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 감옥 예능이 안방문 앞에서 있었다. MBC에서 ‘진짜 사나이’로 군 예능의 대추화를 이끈

김민중 PD와 ‘무한도전’ 제영제 PD가 내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교도소 콘텐츠의 새 예능 프로그램 관을 짜고 있는 것.

제작진은 “교정 공무원들의 노고를 심도 있게 다루고 ‘죄를 짓지 말자’는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구속부터 재판, 수감까지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국내 최초 사법 리얼리티다.

다소 의아하고 뜻밖의 배경이지만 폐쇄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군대와 교도소다. 김민중 제영제 PD 특유의 참신한 시각이 예능계의 또 다른 관을 짚 전망이다. 슬기로운 감빵생활 때처럼 섬세하게 연출하기 힘든 그림이다.

이미 콘텐츠 흥수시대. 대중의 시선은 높아져 있고 웬만한 무기로는 살아남기 힘든 과열 경쟁시대다. 따라서 베일에 싸여 있는 공간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군대에서 교도소로 그 시선이 옮겨진 상황이다.

물론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날의 검이다. 교도소 콘텐츠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린다.

다만 어떤 그림일지 호기심 가득한 몰음포도 분명 존재한다. 대한민국 방송 콘텐츠가 교도소 담장까지 무너뜨렸다.

적수 없는 ‘강식당’, 지상파·종편 누르고 시청률 독주



tvN ‘신서유기 외전 강식당’(강식당) 지난 주 첫 방송에 이번 2회차에서도 폭발적 시청자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TNMS (전국 3200가구에 거주하는 약 9천명 대상) 미디어데이터에 따르면 ‘신서유기 외전 강식당’은 12월 12일 2회차 방송에서 전국 가구 시청률(유료+비유료) 5.9%, 유

료가입 기준에서 6.2%를 기록 했다.

지난주에 비하면 0.4%p 소폭 하락했다. 지난주는 전국 가구 시청률(유료+비유료) 6.3%, 유료가입 기준에서 6.8%를 기록했다.

이날 동시간대 방송한 SBS ‘불타는 청춘’ 1부는 전국 가구 시청률 5.0%, 2부 시청률 5.1%이었다. 강식당은 이보다 높은 시청률이다.

‘강식당’은 이날 지상파, 종편 PP를 포함하여 적수가 없는 최고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강호동과 신서유기팀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TNMS 측은 “시청률 순위에서 ‘강식당’처럼 PP 채널 프로그램이 첫 방송부터 지상파를 누르고 동시간대 1위를 차지 한 이후 2회차 방송에서 연속 동시간대 1위를 계속 유지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강식당’은 20대와 30대 기준으로 화요일 시청률 순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TNMS 측은 “‘강식당’이 이처럼 화요일 하루 동안 지상파, 종편, PP에서 방송한 모든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을 누르고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가장 시청률(20대 3.1%, 30대 5.4%)이 높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강식당’이 우리나라 시청률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식당에서는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는 모습이 나왔다. 고기를 두드려다 지친 멤버들이 작은 사이즈의 ‘이수근까스’를 개발했다.

큰 접시보다 큰 ‘강호동까스’를 본 손님들은 “우와, 이렇게 크냐”고 감탄했고, 손바닥보다 작은 ‘이수근까스’를 본 손님들은 황당해서 그저 웃기만 했다.

또한 영영 둘째날 시작과 함께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각자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그려지고 이로 인해 멤버들 사이에서 불화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도 했다.



오늘의 순세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음력 10월 27일)

- ▶ **쥐** 보기에 아주 위태하나 약간의 어려움만 극복한다면 그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자포자기는 금물이다. 약간의 재물이 따르나 허황된 꿈 탓에 금전 손실이 뒤따를 듯. 문서 관리 철저히 하라. 애정은 길하다.
- ▶ **돼지**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니 소원 성취할 수. 귀인의 도움을 받으니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 경거망동 삼가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남도 지배할 수 있다. 기, 비, 오 성씨 자녀를 잘 지켜볼 때다.
- ▶ **호랑이** ‘급할수록 천천히’란 말을 상히해 매사 신중함 자세를 가질 때 예상치 못한 희망이 찾아오고 희소식이 들리겠다. 애정은 여유있게 배양부리다 빼앗기는 수니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 7, 8, 9월생 흰색과 검은색으로 단장.
- ▶ **사슴** 최선을 다해 일하나 분주하지만 할 뿐 만족감을 얻지 못 하니 마음이 불안한 상태구나. 북쪽에서 도움 줄 자 나타날 수. 매사에 겸허하고 남의 저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따를 때 사업과 가정 만사 길할 듯.

- ▶ **물고기** 구설이나 잔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한 자세가 요구됨. 비, 꽃, 등 성씨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별할 때 짚어진 짐을 덜 수 있을 듯. 중기는 아픔을 참고 짜야 상처가 아물며 법안을 깨달아야 할 때다. 쥐, 개, 토끼띠와 함께 협력하라.
- ▶ **닭** 번거롭고 답답하던 일들이 주위 도움으로 시원스럽게 풀릴 운이다. 애써 확장하려 말고 현재 위치를 확고히 다지라. 5, 8, 12월생 금전 손실이 예상되면 길 출하는 삼갈 것. 기, 타, 표 성씨 동업은 피하라. 구설로 마음 고생 심할 듯.
- ▶ **말** 무슨 일든 신중히 생각한 뒤에 처신하라. 사업은 당장 작은 이익보다 긴 안목으로 생각하며 실행할 때 순조롭게 진행된다. 기, 표 성씨는 대인 관계로 신경 쓸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언행 조심할 것.
- ▶ **호랑이** 사소한 일로 주위와 다툼이 예상되니 이기적인 사고보다는 상대를 존중하며 이해할 줄 알아야 사업 또한 길하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야 훗날 환한 웃음을 짓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물고기** 마음의 병을 방심하고 방치해 두면 길이 부리를 내리니 조심하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힘드나 기, 오, 지 성씨 도움이라면 가능하지 못한 것도 아님을 명심하라. 그러나 무모한 일 추진은 복을 오히려 화로 바꾼다는 것을 명심하라.
- ▶ **닭** 주위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비판적으로 대하게 되며, 한 가지 일에 빠지게 되니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할 때가 있다. 세상이 웃음바다가 될지언정 정작 본인만 웃음을 잃은 지 오래다. 애정관에 시달리는구나. 사업적으로는 서서히 풀릴 듯.
- ▶ **물고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승산된 계획일지라도 오차가 생길 수. 성공적 모습의 주인공은 본인이 만든다. 고여 썩어가는 물이 되지 말고 자기개발에 힘써야 할 때. 기, 타, 오 성씨 집안 사람에게 당신이 남과 뭔가 다른 점을 인식시켜 보여주는 면모가 필요.
- ▶ **물고기** 타인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만 골라하려 든다면 상대는 그 마음을 외면한다. 그대의 단점을 인식하고 온화한 대화를 이끄는 화술을 스스로 터득함이 좋을 듯. 극단적인 언행으로 나오는 상대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으며 들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